

## 예장(합보)총회 제106회 총회장에 이규필 목사 추대

### 주제 : 일어나 빛을 발하라(사 60:1)



총회장 이규필 목사  
(동천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 총회는 지난 11일(월) 오전 11시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동천교회에서 제106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회무처리에 앞서 총회장 서동기 목사의 인도로 1부 예배가 시작되었으며, 예배를 위하여 정기남 목사(지저스타임즈 대표이사)가 기도를, 서기 서재식 목사는 사 60:1절을 봉독하고, 총회장 서동기 목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서기 목사의 광고를 끝으로 증경총회장 강대일 목사의 축도로 1부 개회 예배를 마쳤다.

강경총회장은 합동보수 총회가 이제 일어난 때라며 성경 말씀은 모이기를 힘쓰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는 등의 말씀으로 설교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거리를 두고 살아라, 모이지 마라, 하나님도 찾지 마라, 이러한 사탄의 장난들로 힘들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모여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여호와를 찾고 찾아야 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 합동보수총회는 작지만 제106회 총회는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하고, 멋진 총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우리는 작은 종이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누구에나 빼앗기지 말라고 했다. 크고 강한 믿음으로 세상을 마귀도 내 자신도 이기는 능력의 사람이 다 되기를 기원했다.

성찬식은 코로나19 관계로 제106회기 총회에서 생략되고, 서동기 총회장의 사회로 회무처리에 들어가 서기 서재식 목사의 총대 호령과 의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절차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제106회기를 이끌어갈 임원선출에 있어 선거위원장 강대일 목사(증경총회장)를 비롯해 몇몇 증경 총회장이 선거위원을 맡은 가운데 약 10분간 정회를 가진 후 속회를 갖고 강대일 선거위원장은 선거위원의 결의에 따라 신임원을 발표했다.

신임총회장 이규필 목사(동천교회), 부

총회장 정기영 목사(유임/CBN TV), 서기 서재식 목사(유임/동성교회), 부서기 천종록 목사(신임/연약교회), 회의록서기 김주현 목사(유임/빌라델비아교회), 부회의록서기 배영자 목사(유임/금천시온교회), 회계 송인섭 장로(유임/양문교회), 부회계 강대섭 장로(신임/평안교회), 총무 박용순 목사(신임/화북교회), 등을 선출 발표했다.

이날 신임총회장 이규필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새롭게 총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여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총회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좀 더 노력해 나아갈 것이라며, 여러분의 절대적인 협조와 힘이 절실하다면서 106회기는 더욱더 총회가 발전하는데 노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는 회기가 되기를 힘쓰자’고 했다. 이날 폐회 예배는 신임총회장 이규필 목사의 인도로 히 11:17~19절을 합동하고 말씀을 전한 후 총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기장 총회,  
‘여성’ 김은경 목사 총회장 취임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제106회 총회가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요 10:10, 롬 8:18-19, 미 7:8, 시 91:2-3)’라는 주제로 28일 충북 청주시 청주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우암교회·성동교회·청주동부교회 등에서 분산 개막했다. 총회는 이틀간 진행된다.

총대 6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총회장에 지난 회기 부총회장 김은경 목사(익산중앙교회,사진)가 만장일치 박수로 추대됐다. 신임 부총회장에는 각각 단독 출마한 강연홍 목사(제주성내교회)와 이규철 장로(나눔의교회)가 선출됐다. 이들은 총대들의 뜻에 의해 투표 없이 박수로 인준받았다.

신임 총회장 김은경 목사는 “발전하던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았다. 100년 전 민족과 더불어 독립을 외치고, 1960-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여러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회는 대한민국의 위로와 소망이 됐다”며 “1980-1990년대 민주화와 분단 현실의 상황을 끌어안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살았고, 그 가운데 기독교장로회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그러나 지금은 교회가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그냥 둘 수 없다”며 “106회 총회를 계기로, 주님께 새 역사를 이루실 줄 믿는다”고 전했다.

김은경 목사는 “여러분과 더불어 만들어 가는 길이다. 지극히 작은 것을 끝까지 지켜, 새로운 동력과 역사로 함께 나

아가는 길에 서고 싶다”며 “어둠 후에 빛이 온다. 세상의 빛이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라’고 하신다. 이런 정신으로 106회 총회를 열어보자”고 했다.

부총회장 강연홍 목사는 “역사상 최초로 여성 총회장 선출을 앞두고 있다. 부총회장이 된다면 총회장님을 지근거리에서 열심히 모시고 많은 훈련을 받겠다”며 “제게도 장차 총회장 직임이 주어진다면 받은 훈련을 토대로 교단과 한국교회를 섬겨 나가겠다”고 했다.

강 목사는 “포스트 코로나 대책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섬기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우리의 기본은 예배와 전도, 다음 세대 양육이다. 앞으로 교회 비전은 다음 세대에 있다. 부총회장으로서 빛을 갠 마음으로 총회장을 잘 섬기겠다”고 밝혔다.

이규철 장로부총회장은 “우리 교단은 복음의 자유와 신앙 양심, 하나님의 선교 정신에 따라 민주화를 선도했다”며 “교회와 성도 감사로 총회가 위기에 처했다. 총회장님을 적극 돕고 섬기겠다. 복음으로 돌아가고 예배가 회복돼야 한다. 중소도시, 농어촌 교회 형편을 잘 돌보겠다”고 말했다. 앞선 개회예배에선 총회장 이견희 목사(청주제일교회)가 ‘어두움 후 빛이 오며: 생명·치유·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 목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만이 모든 인간을 살리는 명약”이라며 “사도 베드로는 희망에 대해 사람들에게 설명할 준비를 하라고 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이자 제106회 총회를 준비하는 총대들의 자세”라고 했다.

CBN TV 기독교방송(본지 언론협회)

### 한교연성명서 여야 대선 예비경선 후보 간의 저질 인신공격 즉각 중단하고 소신·정책·비전 대결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라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 일정에 돌입했다. 그런데 여야 막론하고 예비후보 경선과정에서부터 상대방을 몰아내고 할려는 인신공격 경선이 벌어지고 있어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각 정당을 대표해 대선 최종 후보로 선정되기 위해 해선 소신과 정책, 비전에 대한 품격있는 검증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서 국민이 TV 앞에 모이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예비후보 경선을 보면 여야 모두 정책 대결은 실종되고 오로지 상대를 난도질하는 언어폭력에 귀중한 시간과 전파를 낭비하고 있다. 국민은 오로지 상대를 짓밟아야 내가 산

다는 이진투구(泥田頭)를 굳이 여야 대선 예비후보 경선에서까지 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끝까지 살아남아 대선 후보가 된 누가 국민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어느 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줄 희망이 되었는가.

대한민국은 지난 1년 9개월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의 늪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교회는 신앙의 본질인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자유마저 박탈당했고,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생존의 절벽 끝으로 내몰려 목숨을 끊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여야 대선 예비후보들은 이런 국민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다. 코로나19로 위기에 봉착한 나라의 현실

은 안중에도 없다는 말인가. 국가 대계를 이어받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국민은 외면한 채 오로지 권력 쟁취를 위해 벌이는 경선 난투극을 보는 국민의 가슴에 선 분노가 치밀어 오를 정도다.

지금 여당은 지난 5년의 국정이 과연 국가와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였는지 되돌아보고 자중하며 환골탈태(換骨轉胎)해야 할 때다. 또한, 야당은 지난 재보선의 승리에 도취된 듯 과거로 돌아가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체의 연행을 삼가고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주력하기 바란다.

국민은 다음 대통령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바르게 영도할 자질과 능력, 인품을 갖춘 인물인가가 궁금하

지 상태를 힘들고 조롱하는 인신공격에 능한 후보에게 표를 줄 마음이 전혀 없다. 따라서 무슨 수를 써서든 최종 대선후보가 되어 오로지 권력을 쟁취하겠다는 욕망과 자기당파에 빠진 정치인들 간의 죽기살기 식 진흙탕 싸움은 승자 없이 모두를 패자로 만든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여야는 이제라도 유권자인 국민을 낮부고롭게 하는 저질 난투극을 전면 중단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 대결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을 통한 건전한 경선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기 바란다.

2021.10.5.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송대섭 목사

# 축예장합동(보수) 제106회 정기총회

## 주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사60:1절)

| 증경 총회장         |  |  | 직전 총회장         |  |  | 총 회 장          |  | 부총회장               |  | 서 기            |  | 부 서 기          |  | 회의록서기             |  | 부회의록서기           |  | 회 계            |  | 부 회 계          |  | 총 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강대일 목사<br>평안교회 |  |  | 서동기 목사<br>소망교회 |  |  | 이규필 목사<br>동천교회 |  | 정기영 목사<br>CTN TV대표 |  | 서재식 목사<br>동성교회 |  | 천종록 목사<br>연약교회 |  | 김주현 목사<br>빌라델비아교회 |  | 배영자 목사<br>금천시온교회 |  | 송인섭 장로<br>양문교회 |  | 강대섭 장로<br>평안교회 |  | 박용순 목사<br>화북교회 |  |

**본 교단은 뜻을 같이할 목회자, 교단, 기관의 가입을 환영합니다.**

총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53길 94, [가산동] ☎ : 02) 854-1326, Fax 02)496-0181 H.P 010-7474-3173

**사단법인 예장합동보수연합선교회**

이사장 : 이규필 목사



##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주최

## 전국 17광역시도 기독교총연합회회장단 초청 세미나

## -지방자치시대, 지역교회연합의 역할-

이수형 목사  
(순복음춘천교회)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수형 목사, 이하 강기총)는 10월 7일~8일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전국 17광역시도 기독교총연합회 회장단 초청 세미나-“지방자치시대, 지역교회연합의 역할”-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전국의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총연합회 회장단이 참석하였다.

7일은 5시 개회예배는 유화종 목사(강원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되어 임영문(부산기독교총연합회 증경회장)가 기도를, 강성조 목사(제주기독교교단협의회 상임부회장)가 성경봉독을, 배진기 목사(경북기총증경회장, 포항안디옥교회)가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특별기도시간을 가진 후 양명환 목사(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상임회장)의 축도로 진행했다.

배 목사는 '화목의 도구가 됩시다'라는 제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교회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제시하며 ▲예수님으로 중심을 잡고 유연하게 화목의 사역을 감당 ▲겸손의 사명으로

화목의 사명을 감당▲기도와 제사장직 선포의 조화로 사명을 감당 ▲긍정적 적응으로 사명을 감당 하자고 강조했다.

메시지 선포 이후 “한반도 복음통일과 북한동포를 위하여”는 광종원 목사(충북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국민화합 국가변영 민생경제를 위하여”는 박종희 목사(경남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한국교회와 연합하고 지혜를 기 위하여”는 안철암 목사(세종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맡아 기도하였다.

개회예배 후에는 “지방자치시대를 함께하는 지역교회연합의 건강한 역할 연구”의 주제로 이수형 목사(강기총 대표회장, 순복음춘천교회)의 진행으로 정책간담회가 진행 되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경남기독교총연합회 회장)가 발언한 후 참석자들과 심도 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수형 대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강원도와 강기총은 포스트코로나시대의 불확실한 사회적 위기상황에도 우리 사회가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행정과 교회연합의 상호협력과 중장기적 사회발전 비전의 공유등 복지사회로 사심 없이 의논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부와 지자체와 소통하고, 초대

교회 신앙으로 돌아가 다시 예배를 회복시키고, 지역사회와 대한민국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일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이번세미나는 통해 “지역교회 연합들이 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소원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에서는 우리 도정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셨다.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며 백두대간 횡발기도회를 개최하여 분열된 국토 통합에 앞장서 주셨고, 올림픽의 성공 개최 이후에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도와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에도 발 벗고 나서 주시는 등 항상 응원해 주셔서 도정 정책을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라고 말하며 “강원도기독교 총연합회가 도와 강원도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곽도영 강원도의회 의장은 “올해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는 해이다. 코로나 19위기를 겪으며, 지방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커졌다.”라고 말하며 “자치분권 확대에 발맞춰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 주민과 함께 지역 발전을 만들어야 한다. 기독교총연합회가 이를 선봉에서 이끌어 주셔야 한다”라고 말하며 특별히 이번 세미나를 맞아, 지난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한반도 평화를 이어갈 2024강원정소년동계올림픽의 남북공동 개최를 위해서도 힘을 모으자”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평창이 국제적이 평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3년 청소년동계대회와 2024년에 청소년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코로나 19로 빼앗긴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요청을 했다.

정책 간담회 에 이어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과 통일비전 스포츠외교-민간단체의 역할”은

력관, (사)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지원위원회 부위원장,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축구대회 조직위원장, 경기대학교 한반도전략문제연구소 부소장, 평화평화포럼 조직위원회 위원, KBS 자문위원>이 강원도청소년 올림픽의 진행 배경과 함께 스포츠 외교에 민간 단체의 중요성을 말하며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쁜 법들 입법을 막기 위한 대책회의와 공동성명서 채택”은 김원평 교수(한동대학교 철학담당학과 석좌교수, 부산 초량교회 장로, 바른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대표, 동성애동성혼반대 국민연합 운영위원장)가 강의 하였다.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나쁜 법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한국교회 물락과 부흥의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임을 말하였다. 그러나 한국교회 대다수 지도자는 심각성을 깨닫고 있고 대책을 찾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부흥할 수 있음을 말하였다. 이어 조용호(전 법제처 부이사관) 박사가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법전체의 체계의 관점에서 차별금지법안의 법리적 쟁점을 분석, 검토함으로써 법적 이해를 돕고 나아가 입법적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에 대해 강의했다.

## 2021 한반도 복음통일 선교대회

‘2021 한반도 복음통일 선교대회’가 8일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이수형 목사)주최로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상진 목사(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상임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선교대회는 이우탁 목사(울산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의 대표기도, 이현국 목사(부산기독교총연합회 수석상임회장)의 성경봉독, 이철 목사(한교총 공동회장, 감리교 감독회장)의 설교와 이수형 목사(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의 감사인사, 서석근 목사(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증경회장)의 축도로 마무리 되었다. 선교대회 중 특별기도는 “복음으로 통일대한민국이 이루어지도록”은 신재영 목사(경북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창조질서 회복과 정의로운 사회를 위하여”는 오종설 목사(충남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민족복음화와

다음세대를 위하여”는 김길수 목사(인천기독교총연합회 대외사무총장)가 맡아 기도하였다. 선교대회가 마친 후 김재박 목사(서울시교회와시정협의회 수석부회장)의 기도로 조찬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이철 목사는 “선한 목자”의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지금 한국교회는 박해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며 “샬롬과 선한 목자는 편안 할 때는 차이가 없으나 위기에 있을 때 드러난다”고 말하였다. 세상 사람들은 한국교회를 샬롬으로 보고 있기에 위기라고 말하며 앞으로 한국교회는 샬롬이 아니라 선한목자임을 삶으로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미래세대에게는 삶으로, 질로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희생했던 역사를 회복 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교회의 과제는 진보성과 보수성 그리고 선한 목자라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야 한다”며 “과거의 교회가 회생을 했고, 지금도 회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진정성과 참신앙이 아니면 살릴 길이 없다”며 “이제는 선한 목자로 교회가 서야만 양들이 모이고 양들이 서게 된다”며 “코로나 19가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축원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특별기도 시간에는 ‘복음으로 통일대한민국이 이루어지도록’ (신영재 목사, 경북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창조질서 회복과 정의로운 사회를 위하여(오종설 목사,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민족복음화와 다음세대를 위하여( 인천기독교총연합회 대외사무총장) 참석자들과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수형 목사는 행사를 마무리하며 참석한 모든 연합회 회장단 분들과 도지사님 그리고 도의원님에게 감사인사를 하며,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가 복음통일의 단초로 사용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기도도 건강한 대한민국, 소망이 있는 다음세대들이 나올 줄 믿는다”라고 말했다. 이날 2021 한반도 복음통일 선교대회’ 서석근 목사(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증경회장)의 축도로 마무리했다.

예장(정통)총회 57주년  
총회장 양정섭 연임

대한예수교장로회 정통총회는 지난 9월 27일 제57차 정기총회를 평안교회에서 열고, 양정섭 목사를 정통총회 총회장에 추대하고 새로운 회기를 위해 업무에 들어갔다.

총회에 앞서 상임총무 임정태 목사의 인도로 1부 개회 예배를 시작으로 부총회장 이영춘 목사가 기도를, 인도자인 임정태 목사의 성경봉독(창 41:37~45절)했다.

이어 총회장 양정섭 목사는 “성공한 사람 요셉”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요셉은 파란만장한 생애를 보내면서도 최후까지 승리의 길을 걸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성공자가 된 사람이었다. 첫째, 요셉은 꿈을 지닌 사람이었다. 애굽에 팔려갈 때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할 때도 낙심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위하여 전진했다. 꿈을 안고 살았기 때문에 현실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우리도 요셉처럼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둘째, 요셉은 열정적인 사람이었다. 요셉은 불평불만 없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모든 일에 노력하고 충성스러웠다. 꿈을 안고 살았기 때문에 귀한 여감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매사에 열심을 품고 일해야 성공할 수 있다.

셋째, 요셉은 절개를 지닌 사람이었다. 그는 육체의 절개, 민족의 절개, 신앙의 절개를 잘 지켰다. 참으로 어려운 시험을 잘 이겨낸 사람이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절개를 지킴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

넷째, 요셉은 관용의 사람이었다. 자기를 애굽사람에게 팔아넘긴 형들에게 복수하기는 커녕 오

려려 재회의 기쁨을 나누며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었다. 우리는 정치화기보다 용서해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을 포기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큰 축복의 사람으로 임해주신다.”면서 요셉처럼 신앙의 승리자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진 2부 정기총회에 들어가 민경구 목사(부서기)의 기도와 전대식 목사(서기)의 총대 호명 결과를 보고하고, 양정섭 목사(총회장)가 정족수가 과반으로 개회를 선포했다. 회의록서기 최은희 목사를 임시 서기로 임명하여 회의내용을 기록하게 하였다. 전 회의록 보고는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고, 사업보고, 재정보고, 각 노회보고, 임원회보고는 유인물대로 받기로 결의했다.

임원선거는 총회장 양정섭 목사가 유임되고 부총회장 이영춘 목사와 양성은 목사, 한세전 목사, 부회록서기 이영숙 목사, 회계 김영희 목사, 부회계 김병섭 목사, 감사 한성욱 목사, 이순례 목사 등이 유임됐다. 이어서 신안건토의에 사업안과 예산안은 유인물대로 받기로 만장일치 가결하였다. 회의록 채택은 차후 58차 정기총회에 보고하기로 하고, 기타 안건은 접수되는 대로 임원회에서 처리한다는 결의하고, 총회장 양정섭 목사가 고린도전서 4장 1-2절을 낭독한 후 양 총회장의 축도로 폐회되었다.

##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지침요강을 준수한다.)  
대표고문: 피종진목사 이사장: 오종설목사 사장: 소진우목사 발행인: 정기남목사

전국 24개 지사 / 해외 27개국 지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빌딩 32호 대우빌라 2층 202호  
(고강본동 574-10, 대우빌라 2층 202호)

▶E-mail : jipress@hanmail.net / jtnvcpj@naver.com

▶팩스 : 032)672-3031

▶HP : 010-5468-6574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 부터~

▶1년 구독료 : 50,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758-910292-36807 / 농협 455030-56-005509

좋은 만남  
행복한 성도

담임목사 박수영

| 예배 시간 안내 |                 |
|----------|-----------------|
| 주일예배     | 오전 11시<br>오후 2시 |
| 수요예배     | 오후 7시           |
| 금요기도     | 오후 8시           |
| 새벽기도     | 오전 6시           |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샘교회

대구광역시 동구 송라로 16길 11 동대구반도유보라 후문  
TEL. (053) 752-8238

꾸미오리기독교무용신학  
신입생 모집 요강

WRTS 세계로신학술원·신학원



김창숙 목사

◆ 꾸미오리기독교무용신학은 세계로신학술원과 학점교류를 통해 세계로신학술원 학장명의로 졸업장 수여 함.

◆ 과정수로 후 세계로신학술원을 통해 연장수업으로 (USA)Cumberland University 학위 취득이 가능함.

과정 : 찬양, 율동, 워십, 한국무용

수업요일 : 매주 월, 수, 금

장 소 : 꾸미오리선교센터(경기도 양주시 고암동182-3)

문의 : HP 010-4137-0796 (김창숙 목사)



세계로신학술원 · 꾸미오리기독교무용신학

대한예수교 장로회 **번성교회**

2021 번성표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  
(히 6:14).

예/배/시/간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저녁 7:30  
금요부흥집회 저녁 7:30  
새벽 기도회 새벽 5:00

담임목사 박정균  
Rev.(D.Min.) Park Jeong Kyun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110-1  
☎교 회: 042)523-3191 FAX: 042)523-3090 E-mail: jk2838@hanmail.net

절이 변하여 교회가 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날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Come & See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GD FC**  
GOD DESIGN FELLOWSHIP CHURCH



담임목사 김창룡



상임목사 박영미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항길242번길75  
전화: 010-7172-0675, 011-204-6795  
팩스: 031-366-2235 홈페이지: www.gdfc.kr



# 예장(웨신)총회 총회장 이·취임 및 출판감사에배



말씀을 선포하는 증경총회장 허창범 목사  
(지저스타임즈 직전이사장/광주푸른솔교회 원로)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106회기 총회장 이·취임감사에배가 지난 9월 26일(주일) 오후 4시 경기도 화성시 서동탄로 61번길 꿈너머꿈교회 본당에서 부총회장 임예성 목사의 인도로 1부 이·취임감사에배를 시작으로, 2부 총무 김복래 목사의 사회로 신임총회장 김현수 목사(꿈너머꿈교회), 직전총회장 박정균 목사(대전번성교회)의 이·취임식이 진행되고, 3부 총회장 김현수 목사의 출판기념 감사에 이미 지 집사(투헤브 홍보대사)의 사회로 진행되어 도서 및 저자 소개, 추천 감사자 논평 등이 소개되고 4부 예산 및 교재로 축하와 덕담 등을 나누었다.

이날 1부 감사예배는 부총회장 임예성 목사(호남/벤엘교회)의 인도로 제1부총회장 양덕심 목사(한성/새생명교회)가 기도를, 부서기 이영선 목사(수도/하늘샘교회)가 성경 빌 2:5~11절을 봉독하고, 테너 김현호(웨신음악홍보대사)의 특송을 갖고, 증경총회장 허창범 목사(호남 푸른솔교회 원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허창범 증경총회장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관점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으로 그리스도 예수

의 태도, 그리스도 예수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린다고 했다. 목회하면서 지도자로서 총회에서 노회에서 리더 역할 때와 한국교회 리더 역할 때, 그분 마음을 가졌더라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라면 그리스도의 관점에서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마음을 가져본다고 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총회를 살리고 상황을 돌보면서 코로나시대에 어떻게 하면 총회를 돌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총회원들이 좀 더 편안하고, 즐겁고, 안정되게 섬길 때, 또는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드리시고, 기도하는 영성의 사랍이기 때문에 또한 말씀과 기도로 열심히 총회 내적 성장에 목표를 두라고 했다.

그리고 화합과 담합이 필요하고,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목회자와 교회들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돌보아야 한다고 했다.

교단 총회장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주관적인 역사에서 김현수 총회장이 등장했다며 격려했다. 이외의 진행은 CJTV TV(<http://jtn.tv>) 지저스타임즈 인터넷방송에서 시청하면 알 수 있다.

이어 회계 허승무 목사(대학/더엘교회)가 봉헌기도를, 봉헌찬양에 찬양사역자 손재석 목사, 특별기도회는 1) 국가를 위하여 정미후 목사(전 부총회장), 2) 복을 통일을 위하여 이정구 목사(회의록서기), 3) 교회를 위하여 최선녀 목사(회의록서기), 웨신총회를 위하여 마순덕 목사(전 부총회장) 등이 기도에 나섰다.

2부 총회장 이·취임식에 총무 김복래 목사의 사회로 서기 이병만 목사가 총회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김현수 신임 총회장은 이임하는 박정균 직전 총회장에게 금반지를 증정했다. 직전총회장 박정균 목사는 이임사를 전하고 신임총회장 김현수 목사에게 취임 축하패를 전달했다. 이어 회의록서기 김미라 목사는 취임총회장 김현수 목사를 소개하고, (수도노회, 투헤브이사회) 축하패 및 꽃다발, 선물 증정이 이어졌다. 이어 신임총회장 김현수 목사가 취임사를, 나 원 목사(국제대학원대학교 이사장), 신평식 목사(한교총 사무총장) 등이 축하했으며, 이종규 목사(증경총회장)의 격려사를, 이영풍 목사(증경총회장)가 권면을, 축하 찬양에 꿈너머꿈교회 합창단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룬 찬양이었다.

또한 3부 출판기념 감사에 이미지(투헤브 홍보대사)집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최현정 공장(투헤브선교회)은 도서 및 저자를 소개하고, 추천 감사자 논평을 민경배 박사(연세대학교 명예교수), 김현수 박사(투헤브선교회 대표)의 저자 소감 및 인사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본 교회 황귀석 장로, 총무 김복래 목사의 광고를 끝으로 원로 이규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웨신총회는 개혁주의 보수신앙을 견지하고, 한국의 표준총회를 지향하며 2001년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를 인준학교로 설립된 정통교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창립 당시 웨신대 전 총동문회장 모상련 목사(목포주안교회)를 초대



직전총회장 박정균 목사



총회장 김현수 목사

소개를, 직전 서기 황봉기 목사는 직전총회장 박정균 목사가 재임 기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 오면서도 총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공로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김 총회장은 인사말에서 “예장 웨신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세워주셔서 그 신뢰에 감사하다. 첫째는 하나님이고 그다음으로 웨신 총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는 총회로 나아갈 것”을 피력했다.

김 총회장은 기독교 장례문화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2013년부터 ‘수의(壽衣)’ 등의 장례 용어를 ‘천국 옷’ ‘성의(聖衣)’ 등의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고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천국 입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장례식이 아니라 ‘천국 환송 예식’을 드리는 운동을 벌여왔었다.

또한 김 총회장은 장례지도사 대신 ‘천국환송 지도사’를 양성해 오면서 ‘기독교 장례, 이대로 좋은가’ ‘성경적 천국환송’ ‘부활실천신학-천국환송예식서’ 등 관련 서적을 계속 펴내 왔고 이날 ‘예수 부활의 15가지 비밀’을 출간, 출판기념회를 겸한 신임총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 웨신총회는 지난 9월 6일(월) 오후 2시 제 106회기 정기총회에서 총회장 김현수 목사(꿈너머꿈교회), 제1부총회장 양덕심 목사(한성/새생명교회), 제2부총회장 임예성 목사(호남/벤엘교회), 총무 김복래 목사(경천/꿈과희망교회), 서기 이병만 목사(동서/원주중앙교회), 부서기 이영선 목사(수도/하늘샘교회), 회의록서기 이정구 목사(경천/예수누리교회), 부회의록서기 김미라 목사(수도/주찬양교회), 회계 허승무 목사(대학/더엘교회), 부회계 최선녀 목사(한성/소망교회) 등을 선출, 집무에 들어갔다.

## 호남노회(웨신) 호남노회, 임예성 목사 노회장 선출



대한예수교(웨신) 호남노회는 지난 4일(월) 오전 11시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버들로 소재 동행교회(김태욱 목사 시무)예배당에서 가을 정기노회를 개최하고 1부 개회예배, 2부 회무처리에서 신임원 선출, 3부 폐회예배 순으로 진행되었다.

1부 개회예배는 서기 김사라 목사(푸른솔교회)의 인도로 시작되어 회계 유한주 목사가 기도를, 말씀봉독(출 14:5~7절)에 회의록서기 김태욱 목사(동행교회), 노회장 고종욱 목사(우리들교회)는 “믿음의 눈을 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공로패 증정과 인사 및 광고가 있은 후 박정균 목사(웨신직전총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 2부 성찬식에는 허창범 목사(웨신 증경총회장)의 집례로, 마순덕 목사가(사랑하는교회) 기도하고, 분병, 분찬위원은 고주영 목사(장흥팔복교회), 정미경 목사(열린문교회) 등이 맡았다.

2부 회무처리에는 노회장 고종욱 목사의 사회로 임예성 목사(웨신부총회

장)가 기도를, 서기 김사라 목사가 회원 호명을, 전회록 낭독에 회의록서기 김태욱 목사, 절차보고, 회계 보고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안건토의에 들어가 신임원선출과 푸른솔교회 위임 목사 의결 건 등을 의결하고, 회원 정리에 대해서 또는 강도사 의무의 건 등을 진지한 가운데 다루었다.

차기 노회 장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남실로 82번길에 자리한 형통한교회(양은실 목사)에서 있을 예정이며, 고종자 목사(증경노회장)의 폐회 기도를 끝으로 호남노회 가을 정기노회가 성료되었다.

### 호남노회의 신임원

노회장 임예성 목사(벤엘교회), 부노회장 김사라 목사(푸른솔교회), 서기 김태욱 목사(동행교회), 부서기 함용호 장로(푸른솔교회), 회계 유한주 목사(하늘빛교회), 부회계 최혜순 목사(수원 한소망교회), 회의록서기 고주영 목사(장흥 팔복교회), 부회의록서기 정미경 목사(열린문교회) 등이다.

## 한국CCC, ‘코로나시대’ 전도,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주제로 온라인 전도세미나 개최



한국대학생신교회(CCC, 대표 박성민 목사) 산하 EDI전도제자훈련원은 오는 11월 1일 ‘코로나시대’ 전도,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주제로 온라인 전도세미나를 개최한다.

EDI전도제자훈련원은 ‘현실진단과 이

론을 넘어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실제적 대안을 제시한다는 목적으로 교육비를 받지 않고 무료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전도세미나에서는 ▶한국교회의 전도, 제자훈련의 실제적 대안 제시 ▶다양한 계층을 향한 커리큘럼 소개와 적용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전도 전략 및 트렌드 소개 ▶2022년 EDI 목회자반 36기 훈련 소개 및 초대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전문 강사들과 만나, 실제 사례를 듣고 소통하며 경험할 수 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 웨신총회 제 106회 정기총회

**주제 : “부르심에의 뜻과 사명”(행 20:24)**

**총 회 장**

**김현수 목사**  
꿈너머꿈교회

| 제1부총회장              | 제2부총회장             | 총 무                  | 서 기                  | 부서기                 | 회의록서기                | 부회의록서기              | 회 계                | 부회계                |
|---------------------|--------------------|----------------------|----------------------|---------------------|----------------------|---------------------|--------------------|--------------------|
| <br>양덕심 목사<br>새생명교회 | <br>임예성 목사<br>벤엘교회 | <br>김복래 목사<br>꿈과희망교회 | <br>이병만 목사<br>원주중앙교회 | <br>이영선 목사<br>하늘샘교회 | <br>이정구 목사<br>예수누리교회 | <br>김미라 목사<br>주찬양교회 | <br>허승무 목사<br>더엘교회 | <br>최선녀 목사<br>소망교회 |

**직전 총회장**

**박정균 목사**  
대전번성교회

**웨신총회의 자랑 “일하는 웨신총회”**

본 교단은 일하는 웨신총회...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을 모토로 성경 중심의 예배와 삶을 실천하고 가르치기로 서약하는 모든 보수신앙과 개혁 주의 신학의 정체성을 가진 목회자들과 함께 교계의 표준총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교단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회원 교단으로 연합과 화합에 협력하고 있다.

목사 안수 및 교단 가입 문의 : 총회장 김현수 목사(박사) 010-7667-4719 / 총무 김복래 목사 010-9852-3927

**총회사무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172,(302호)**

☎(02)835-2606-7 Fax (02)835-2608 <http://ws21.org>



靑松 건강칼럼(818)... Cholesterol Day

## 한국인 사망원인 2위



青松 박명운 박사

(보건학박사, 한국보건영양연구소 이사장)  
靑松 건강칼럼(762)... Cholesterol Day  
콜레스테롤(Cholesterol)과 건강

“17 MILLION CVD DEATH PER YEAR, 80% PREVENTABLE”  
(매년 전 세계에서 심혈관계 질환  
(cardiovascular disease)으로 사망  
하는 환자가 1700만명이며, 80%  
는 예방이 가능하다.) 한국심장재단  
(Korea Heart Foundation)이 세계  
심장의 날(World Heart Day)에 즈  
음하여 제작한 포스터 내용의 일부  
다. 심혈관질환은 전 세계 사망원인  
1위이며, 우리나라는 암에 이어 2위  
이다.

통계청이 지난 9월 28일 발표한 '2020년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는 30만4948명으로 전년보다 3.3% 증가했다. 사망자(死亡者) 수가 30만명을 넘어선 것은 사인(死因)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83년 이후 처음이다. 반면 지난해 출생아(出生兒) 수는 사상 처음으로 30만명대 이하로 하락해,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사망 원인별로 보면 2000년 이후 21번째 사인 1위인 암(癌)이 8만2204명, 그리고 심장질환(心臟疾患)이 3만3247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 3위는 폐렴(肺炎)으로 2만2257명이 사망했다. 그 외 뇌혈관질환(2만1860명), 자살(1만3195명), 당뇨병(8456명), 알츠하이머병(7532명), 간질환(6979명), 고혈압(6100명), 폐렴 등(6086명) 순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심장질환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주요 심장질환 환자 수는 162만4062명으로 2016년 대비 16.9% 늘었으므로 연 평균 4%씩 늘어난 셈이다. 심근경색증(心筋梗塞症) 환자는 12만1169명으로 30% 늘었으며, 부정맥(不整脈)은 40만

682명이 발생하여 22% 늘었다. 그리고 협심증(狹心症) 환자는 7%, 심부전증(心不全症) 환자도 2.4% 증가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심장병 환자 폭이 컸다. 그 지난해 80세 이상 심근경색증 환자는 1만 9000명으로 2016년 대비 46.9% 늘었으며, 60대는 42%, 70대는 24% 증가했다. 80세 이상 협심증 환자도 지난해 9만 9800명으로 39% 늘었으며, 70대가 13%, 60대는 3% 늘었다. 부정맥도 80세 이상 환자가 62%, 심부전증은 26% 증가했다. 이는 의학 기술의 발전에 따른 고령화과 과거엔 급성 심장병으로 사망했을 환자들이 병을 안고 살아가면서 고령층 심장병 환자가 늘어난 것이다.

매년 9월 29일은 세계 심장의 날(World Heart Day)이다.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인식 개선을 위하여 2000년 세계심장연맹(World Heart Federation, WHF)이 제정한 날이다. 세계 심장 의 날의 주요 목표는 전 세계에서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하는 환자가 전체 심장 원인의 약 30%에 달한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책, 발병 원인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캠페인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심장(心臟, heart)은 주먹만 한 크기이며, 성인 기준 약 250~350g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더 무겁다. 두꺼운 근육으로 되어 있는 심장은 2개의 심방과 2개의 심실로 이루어진다. 심장은 혈액을 순환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순환계(循環系) 중 주기관으로서 주기적인 수축과 이완을 되풀이함으로써 혈액을 온몸에 공급하는 펌프역할을 한다.

심장을 나란히 붙여 있는 이층집 두 채로 비유하면, 오른쪽 집은 온몸으로 돌고 온 정맥(靜脈)피가 들어와서 폐(肺)로 보내지는 곳이다. 한편 왼쪽 집은 폐로부터 산소가 많은 신선한 동맥(動脈)피가 들어와서 온몸으로 보내지는 곳이다. 오른쪽 이층집의 뒷집(우심방)과 앞집(우심실) 사이에는 삼첨판이라는 칸막이가 있고, 왼쪽 이층집의 위(좌심방)와 아래집(좌심실) 사이에는 이첨판이라는 칸막이가 있어 혈

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아준다.

심방(心房)은 심장에서 들어오는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으로 정맥과 연결되어 있으며, 심실(心室)은 혈액을 내보내는 곳으로 동맥과 연결되어 있다. 심실은 심방보다 두꺼운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 혈액을 내보내기에 알맞다. 좌(左)심방은 폐에서 온 혈액을 받아들이며 폐정맥과 연결되며, 우(右)심방은 온몸에서 온 혈액을 받아들이며 대정맥과 연결된다. 가장 두꺼운 근육으로 이루어진 좌심실은 온몸으로 혈액을 내보내며 대동맥과 연결되어 있으며, 우심실은 폐로 혈액을 내보내며 폐동맥과 연결된다.

심장 판막(瓣膜)은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역류(逆流)를 막는 역할을 한다. 판막은 심방과 심실 사이, 심실과 동맥 사이에 위치한다. 판막은 한쪽 방향으로만 열리기 때문에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혈액은 판막의 작용으로 일방 상향 심방에서 심실로, 심실에서 동맥으로만 흐른다.

혈액 순환의 원동력인 심장 박동(搏動)은 심실과 심방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규칙적으로 혈액을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운동이다. 심장은 보통 1분에 60~70회 수축하므로 하루 평균 약 10만 번을 수축한다. 심장이 한 번 수축할 때 약 80mL 혈액을 대동맥으로 내보내므로, 1분당 약 5L의 피가 심장을 거쳐 우리 몸을 돌고 40~50초 만에 되돌아게 된다.

심혈관계 질환(cardiovascular disease)의 주요 질병으로 고혈압, 허혈성 심장질환,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동맥경화증(죽상경화증), 뇌혈관 질환(뇌졸중), 부정맥 등이 있다.

심혈관질환의 주요 원인인 동맥경화(動脈硬化)는 혈관에 콜레스테롤(cholesterol)이나 중성지방(triglyceride, TG)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결국 막히는 질환이다. 현재로서는 이미 동맥경화가 있는 경우, 더 진행하지 않게 하거나 동맥경화로 인한 사망이나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직 동맥경화가 발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맥경화 위험인자를 조절하거나 제거해 예

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동맥경화 진행과 가장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것이 고혈압(高血壓)과 당뇨병(糖尿病)이므로 만약 고혈압이 있다면 ‘평생 동안 관리한다’는 자세로 생활요법과 약물요법을 통해 혈압을 140/90mmHg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 당뇨병이 있다면 생활요법과 함께 당뇨약을 복용하여 혈당(血糖)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것이 동맥경화의 진행속도를 늦추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

관상동맥(冠狀動脈)질환이란 심장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심장동맥)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질환을 포괄적으로 관상동맥질환이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협심증(狹心症)과 심근경색(心筋梗塞)이 이에 해당한다.

협심증(angina pectoris)이란 동맥경화에 의해 관상동맥의 내부 지름이 좁아져 심장 근육에 필요한 만큼의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 질환이다. 대개 운동을 할 때처럼 심장이 많은 영양분과 산소를 필요로 할 때 좁아진 혈관으로 충분한 혈액이 심장 근육에 공급되지 못해서 심장 기능이 이상이 발생한다. 가슴 통증이 생기며 심장이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심근 경색 증(myocardial infarction)이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심장동맥)이 막혀 심근이 괴사하는 질환이다. 동맥경화에 의해 좁아진 심장동맥 벽에 얼붙어 쌓여 있던 기름 찌꺼기가 터지면서 혈액과 만나 혈전(血栓, 피떡)을 형성하고, 혈전은 혈액의 흐름을 완전히 막아 심장근육이 괴사되면서(썩으면서) 가슴 통증이 발생한다. 죽상경화증(동맥경화증)이란 혈관에 기름이 끼고 혈관벽이 딱딱해지는 병이다. 혈관의 내벽에 콜레스테롤이 침착하고 세포 증식이 일어나서 죽처럼 물컹한 죽종(粥腫, atheroma)이 형성된다. 이런 혈관의 내면은 갈라지고 벽은 두꺼워지면서 혈액이 흐르는 내부의 기름이 좁아져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긴다. 죽종 주위를 둘러싼 섬유성막(fibrous cap)이 터지면 혈관 안에 혈전이 생긴다. 또한 죽종 안으로 출혈이 일어나 혈관 내강이 급격하게 좁아지거나 막히게 된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박명운 칼럼**

# 해리포터와 자산어보



치한 메가박스(MEGABOX)에서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을 관람했다. 그리고 귀가하여 밤 10시 10분에 SBS-TV 추석 특선영화 <자산어보>를 시청했다.

우리나라에서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은 2001년에 개봉되었으며, 2021년 9월에 재개봉했다. 영화를 관람하고 극장을 나서면서 하늘에 둥근 보름달을 보았다. 음력 8월 보름, 한한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었다.

영국인 조앤 롤링(J.K. Rowling)이 1997년에 출판한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Harry Potter and the Philosopher's Stone)>은 1997년 영국의 우수 도서상(National Book Award)을 수상했으며,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A New York Times Bestseller)로 선정됐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에 번역 출판되었다. 원래 제목은 '마법사(魔法師)의 돌(Sorcerer's Stone)'이 아니라 '현자(賢者)의 돌(Philosopher's Stone)'인데, 미국에서 발간될 당시 출판사 측에서 아동들에게 '현자'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하여 바꾸었다고 한다.

조앤 롤링은 1965년 영국 웨일스의 시골에서 태어나 엑세터 대학에서 불문학과 고전을 읽으며 작가의 꿈을 키웠다. 포터즈에 전을 잃어 강사로 일하다가 결혼했으나 곧 이혼하고, 생후 4개월 된 딸을 안고 에든버러에 조라한 방 한 칸을 얻어 정착했다. 일자가 없어 1년이 동안 친구들의 생활 보조금으로 연명하던 그녀는 동화(童話) 쓰기를 열심히 근 근처 카페에서 해리 포터의 모험담(冒險談)을 썼다. 이 책은 발간되자마자 큰 인기와 더불어 세계 최우수 아동도서(兒童圖書)로 선정되기도, 각종 상을 휩쓰는 등 국제적 명성을 얻게 되었다.

크리스 콜럼버스 감독, 다이엘 레드클리프(해리 포터 역) 주연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의 줄거리는 해리 포터는 위압적인 숙부와 냉담한 이모 그리고 욕심 많고 버릇 없는 사촌 밑에서 갖은 구박을 견디며 계단 밑 벽장에서 생활한다. 11살 생일을 마칠 앞둔 어느 날 해리에게 초록색 잉크로 쓰인 진실적인 '호그와트 마법학교' 입학초대장이

배달된다.

런던의 킹스크로스 역에서 호그와트 특급열차를 탄 해리는 같은 호그와트 마법학교 입학생인 헤르미온느 그레인저와 론 위즐리를 만나 친구가 된다. 이들과 함께 호그와트에 입학한 해리는 놀라운 모험의 세계를 경험하며 갖가지 신기한 마법들을 배워나간다. 또한 빗자루를 타고 공중을 날다니며 경이로운 스틸 만점의 퀴디치 게임에서 스타로 탄생하게 된다. 해리는 볼드모트로부터 '마법의 돌'과 호그와트 마법학교를 지키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한다.

《자산어보(玆山魚譜)》는 226가지 흑산도(黑山島) 바다 생물의 특징, 생태, 잡는 방법 등을 기록한 조선시대 최고의 어류 백과사전이다. 다산(茶山) 정약옹(丁若鏞, 1762~1836)과 형인 손암(巖庵) 정약전(丁若鉉, 1760~1816)은 순조 1년(1801년) 신유박해에 연루되어 다산은 강진으로, 손암은 흑산도로 각각 유배를 떠난다. 그 후 다산이 강진에서 《목민심서(牧民心書)》 《흙흙민서(歙歙新書)》 등을 집필하는 동안 손암은 흑산도의 물고기들을 관찰하고 기록한 《자산어보》를 남긴다.

영화 <자산어보>는 색채보다 찬란한 흑백(黑白)으로 나와, 신분, 시대를 초월한 뜨거운 울림과 위로를 전하는 이중의 감동의 영화다. 주연은 설경구(정약전 역)와 변요한(창대 역)이다. 흑산도로 유배된 후, 책보다 바다가 출몰해준 학자 '정약전'과 바다를 벗어난 굴레깁에 오르고 싶은 청년 어부 '창대'가 <자산어보>를 집필하면서 벗이 되어 가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이다.

감독과 주연 배우가 직접 선정한 **〈자신 어보〉**의 명대사는 다음과 같다. 이준의 감독은 '정약전의 명대사로는 "벗을 같이 알면 내가 더 깊어진다"', 장태의 명대사로는 "배운대로 못할면 생긴대로 살아야지"를 꼽았다. 두 대사는 정약전과 창대 캐릭터의 가치관을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가치관을 지닌 두 사람이 나이나 신분의 격차를 뛰어넘어 벗이 되어가는 과정을 잘 표현하는 대사로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설경구는 자신이 연기한 '정약전'의 명대사로 "학처럼 사는 것도 좋으나 구정물, 흙탕물 다 물어도 마다않는 자산 같은 검은 색 무명천으로 사는 것도 뜻이 있지 않겠느냐"를, 그리고 변효안은 '창대'의 명대사로 "물고기를 알아야 물고기를 잡을께요. 흩어 망키는 길은 흉어가 많고, 가오리 망키는 길은 가오리가 양께요"를 꼽았다.

글/ 靑松 朴明潤 (서울대 保健學博士會 고문, AsiaN 논설위원), Facebook, 23 September 2021.

|                                                                 |                                                                                                                                                                                                             |                                                                                                                                                                                      |                                                                                                                                                                |
|-----------------------------------------------------------------|-------------------------------------------------------------------------------------------------------------------------------------------------------------------------------------------------------------|--------------------------------------------------------------------------------------------------------------------------------------------------------------------------------------|----------------------------------------------------------------------------------------------------------------------------------------------------------------|
| <p><b>아직도 장례비용<br/>선불로 내고 계십니까?</b><br/>필요한 품목만 정하는 선택형 서비스</p> |                                                                                                                                                                                                             | <p><b>대한예수교<br/>장로회 푸른솔교회</b><br/>Pinetree Presbyterian Church</p> <p>2021 표어:<br/><b>성령의 인도함 받는 교회!!</b> (로 8:14)</p> <p>2021 VISION<br/><b>광주에서 열방으로!</b><br/>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p> |                                                                                                                                                                |
| <p><b>01<br/>단순장례식<br/>120 만원</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종시 이송차량 관내제공</li> <li>◆ 고인 용품 : 관, 수의, 입관용품</li> <li>◆ 염습 : 소렴 과 대렴 입관</li> <li>◆ 고급리무진 Or 장의버스 선택</li> <li>◆ 화장시 : 목함 매장시 : 횡대</li> </ul>                        |  <p>원로목사 : <b>하창범</b><br/>신학박사/교육학박사<br/>매장행정증경총회장<br/>지파스태프즈 직원 이사장</p>                        |  <p>담임목사 : <b>김사라</b><br/>신학박사/교육학박사<br/>배울신학교수및성도상담원<br/>지파스태프즈 상임이사</p> |
| <p><b>02<br/>3일장 기본 장례식<br/>185 만원</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종시 이송차량 관내제공</li> <li>◆ 영좌설치 : 빈소용품</li> <li>◆ 고인 용품 : 관, 수의, 입관용품</li> <li>◆ 염습 : 소렴 과 대렴 입관</li> <li>◆ 고급리무진 Or 장의버스 선택</li> <li>◆ 화장시-황토봉인함 매장시-횡대</li> </ul>  |                                                                                                 |                                                                                                                                                                |
| <p><b>02<br/>3일장 고급 장례식<br/>220 만원</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종시 이송차량 관내제공</li> <li>◆ 영좌설치 : 빈소용품</li> <li>◆ 고인 용품 : 관, 수의, 입관용품</li> <li>◆ 염습 : 소렴 과 대렴 입관</li> <li>◆ 고급리무진 and 장의버스 제공</li> <li>◆ 화장시-황토봉인함 매장시-횡대</li> </ul> |                                                                                                                                                                                      |                                                                                                                                                                |
| <p>바른 장례 선도기업<br/>조합 법인 <b>한국의전협동조합</b></p>                     |                                                                                                                                                                                                             | <p><b>내 부모처럼 섬깁니다.<br/>내 가족처럼 모십니다.</b></p>                                                                                                                                          |                                                                                                                                                                |
| <p><b>전국 콜 센터 1644-2542 / 대표 : 010-3788-1130</b></p>            |                                                                                                                                                                                                             |                                                                                                                                                                                      |                                                                                                                                                                |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 11번안길 47,**  
영무에다음 2차 후문 앞 수완중 옆 (TEL : (062)953-4620 H.P : 010-8604-6075)







## ▶게시특 9장 강해(59)

## 퍼 놓인 작은 책과 두 증인의 소명-1-

(지난번에 이어서)

1절: '내가 보니, 다른 힌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으로 옷 입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으며, 얼굴은 해와 같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2절: 그의 손에는 작은 책이 퍼있고 오른쪽 발은 바다를, 왼쪽 발은 땅을 밟고서 내가 보니'

이미 앞서 여섯째 인을 폐심으로 7년 환란의 모든 전체적인 내용의 비밀이 드러났고, 8장과 9장에서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구체적인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10장을 읽을 때는 이미 받은 은혜를 기초로 하여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기초로 하여 1절의 힌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할 때, 왜 9장이 끝나고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생각을 하고 말씀을 깨닫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1절의 '내가 보니'의 '나'는 사도 요한입니다. [제1:9~10/19~20]의 말씀에서 사도요한이 밧모섬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제10:1]에서의 '나'는 바로 사도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요한의 신앙은 앞선 장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신앙은 144,000의 신앙의 수준에 있는 자입니다.

그 신앙의 수준에서 볼 때 그 수준에서 영적인 눈으로 될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최고의 신앙 수준에 있는 사도요한은 앞날에 되어 질 일들을 기록도 하지만 이것을 모두 소화해서 증거도 하고 사역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종말의 실제 사역할 144,000과 교차되는 것입니다.

이는 10절에서 사도요한이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내 입에서는 꿀처럼 다나 먹고 나니 내 배에는 쓰다고 한 것과 [제11:3]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일천이백육십일을 예언하리라고 하더라는 말씀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제11:3]의 말씀은 실제 7년 환란 날에 사역할 두 증인에 대하여 말씀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바로 [제10:1]의 '내가 보니'에서 비롯되는



강해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담임

것입니다. 즉, 144,000의 영적인 수준에 있는 사도요한이 종말의 환란날의 두 증인들을 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힌센 천사: 이는 환란 날에 두 증인들을 힌센계 세워지게 하여 이기게 하는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름으로 옷을 입었다: 이것은 누가 입은 것일까요? 바로 사도요한이 입었다는 것이고 또한 실제로는 그것이 바로 구름으로 옷 입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구름은 채색구름을 말하는데 이는 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몸을 입은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에서 장자 되는 요셉에게 채색옷을 주는 것과 같이 장자의 기업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구름으로 옷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은 장자의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 이는 두 증인들이 머리에 쓰는 것은 금 면류관입니다. 이 금 면류관은 일곱 색의 무지개인 일곱 영에 의하여 순교시켜서 그것을 받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오한 표현입니다.

얼굴이 해와 같다: 사도요한, 그리고 두 증인의 얼굴이 해와 같다는 것인데 [마 17장]에서 사도요한이 열세 후 예수님의 얼굴이 해 같이 빛나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은 부활의 영광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셔서 받게 되는 영광이지요, 또 사도요한과 중심계시인 두 증인들이 순교를 하게 되어 받게 될 부활의 영광, 즉 첫째부활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고 바로 이것을 사도요한이 힌센 천사를 통하여 본 것입니다.

발이 불기둥 같다: 두 증인들의 발이 7년 환란의 불같은 시련과 고통이 있는 것을 밟고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같은 불같은 시

련과 고통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밟고 이기게 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보니 힌센 천사로 구름으로 옷 입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으며 얼굴은 해와 같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은은 극심한 최고의 환란에서도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것이 아님을 바로 두 증인들에게 미리 가르쳐주고 remind시켜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요한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제11:3]에서 switch된 두 증인에 대하여 주신 말씀이고, 사도요한은 계시기관으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절에서 힌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바로 두 증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천사와 두 증인은 모두 '앙겔로스' [ἄγγελος]입니다.

즉, 사도요한이 천사이고, 두 증인이 천사이며 이 말씀을 통하여 두 증인들이 힘을 받게 되며 이기고 또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 발로는 바다를, 왼쪽 발로는 땅을 밟는 것: 바다는 죄악세상을 말하는데 발로 밟는 것은 이기고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이길까요?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인 복음으로 죄악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밟는 것은 육적인 소욕과 같은 것을 진리로 완전히 버리게 하시는 하늘의 영생을 위하여만 살게 만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육적인 것에서 이기는 것이며 땅을 밟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과 진리로 세상도 이기고, 육적인 것에서도 이기고 오직 하늘의 속한 영생을 위하여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손에는 퍼 놓인 작은 책이 있다: 이 책은 말씀인데 [단12:4]의 책이 바로 이 책인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책을 기록하되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22:10]에 "이 책을 봉인하지 말라, 이는 그 때가 가까움이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고 하

셨는데 이 마지막 때가 다 되었기에 퍼 놓인 책이 된 것입니다.

이 퍼 놓인 책은 환란 날에 강물 위에 세마포 입으신 신랑 예수님이 강을 건너게 하시는 역사 즉, 순교시켜주시는 역사를 하시고 그와 관련 되서 일곱 인과 일곱 나팔로 장차 환란 날에 되어 질 예언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힌센 천사인 두 증인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즉, 두 증인은 환란 날에 복음으로 죄악에서 이기게 하고, 진리로 하늘에 속한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퍼 놓인 작은 책을 먹게 해서 1,260일 동안 예언하고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며, 그 사역을 끝마치게 되면 순교하게 되어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하는데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영광 가운데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1절에서 사도요한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천둥이 발하더라.

4절: 그 일곱 천둥이 소리를 발할 때 내가 막 기록하려는데,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내게 들리며, 말하기를 "일곱 천둥이 말한 것들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시니라.

일곱 천둥: 천둥, 즉 우레 소리는 [욥26:14]에서의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은 1.2절에서 두 증인들의 영적인 상태와 사역이 나오는데 이들이 증거하고 실제로 순교하게 하는데 따른 능력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교까지 하게 하고 이기게 하는 그 능력을 일곱 천둥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둥소리를 사도요한이 들었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천둥소리를 기록하려고 하니 이것을 기록하지 말고 인봉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인봉시켰을까요? 이것은 바로 마귀와 죽이는 자들이 알지 못하게 인봉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요한이 이것을 들었고 알고 있으며, 두 증인들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능력으로 역사

하고 이기게 할 때에 다 다릅니다. 두 증인들이, 또 순교성도들이 다 똑같이 순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수준에 따라 톱으로 켜임으로 순교할 수 도 있고, 권총으로 금방 순교할 수도 있는데 이처럼 다 다른 수준으로 순교하게 될 때에 이때마다 다르게 주시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사람마다 다르기에 모두 기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두 증인들은 알 수 있는 것이고 두 증인들도 각자 사람별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깨달은 바와 같이 [제2:17]의 파가모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감추인 만사를 주셔서 이기게 하는 것도 이 일곱 천둥에 해당되는 것이고, 사형장에서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주셔서 힘을 북돋아 이기게 하는 것 역시 일곱 천둥의 능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두 강도보다 먼저 숨지셨는데 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신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죽는 순간도 감당할 수 있게끔 빨리 단속시켜 주시는 것도 일곱 천둥의 능력인 것입니다.

순교자들과 두 증인들이 순교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이기게 해서 순교가 되게 하시는 것이 일곱 천둥, 일곱 우레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교하려면 이 일곱 우레가 임하는 것이고, 이것은 각자 다 다르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마귀와 악한 자가 알면 안 되는 것이기에 인봉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곱 우레가 나타났을 때 사도요한이 이것을 들었고 그것을 기록하려는 데 인봉하였으므로 오늘날 우리도 두 증인으로 인정 받으면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즉, 일곱 우레는 아는 자에 의해서 알게 되어있으며, 또 각자 순교할 때에 해당되는 것은 그때그때 각자에게 역사하는 것이 일곱 우레의 구체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 목사코너 312

## 신종 예수 바이러스

밴엘교회 김항요 목사  
(크리스천비전)



요즘 온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라스베가스 가는 비행기에 중국을 다녀온 승객 3명이 타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자, 이 비행기는 곧바로 LAX로 회항해 검역을 마친 후 라스베가스로 갔다는 신문기사를 읽었습니다. 한국의 모 교회는 6번째 확진 환자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 식당에서 밥까지 먹고 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난 주일은 영상 예배로 대신했다는 기사도 읽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무섭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독감으로 더 심각한 상태지만, 치료 백신도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신종 바이러스로 인한 1차로 감염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켜 확진환자가 늘면서 바이러스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동선 파악에 열안이 되어 있습니다.

## 예수님 때문에 살 맛나는 세상에서 살아보길 희망

9,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층에 한 확진자가 발생된 즉시 동네 초등학교 세 곳이 휴교를 하는 등 사람이 모이는 상가, 스포츠 센터 등은 유령 마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인적이 드물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바이러스 보유자로 확인되는 순간 온 도시가 난리가 나는 현상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보고입니다. 오랜지 카운티 엘바인에서 신종 '예수 해피 바이러스'가 발견되었습니다.

대학가 하버드에 위치한 베델교회에서 최초로 발생했다고 추측되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그 순간 먹구름 같은 얼굴이 환하게 변합니다. 우울증이 사라지고 삶의 의욕이 생깁니다. 이기심이 사라지고 서로를 돌보는 마음이 생깁니다. 불의한 욕심과 다툼이 없어지고, 이들이 일하는 곳마다 웃음 꽃이 만발합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즉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난폭 운전이 없어지며 지난 한 달 동안 도난 및 강도 등 어떠한 범죄도 신고된 일이 없을 정도로 도시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예수 바이러스의 부작용으로는 경찰과 변호사들이 할 일이 없어 폐업을 하게 된 것과 약국에서 더 이상 우울증 약이 팔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바이러스로 1차뿐 아니라 제2차, 제3차 감염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수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VIP들을 기도로 품으며 예수님 때문에 살 맛나는 세상에서 한 번은 살아봤으면... 하는 꿈 너머 꿈을 꾴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천교회**

담임 이규필 목사 (한신대학 이사장)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94 ☎(02)854-1326

**주일에 배안내**  
주일대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기도회 오후 7시30분  
금요심아기도회 오후 9시(구역예배금) 각 구역별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광교회**

담임 전예덕 목사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396-79 ☎(032)505-3351

**주일에 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시온교회**

담임 조영만 목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39-2 (현대프라자 301호) ☎070-7501-2584 H.P 010-5355-2584  
다음카페 http://cafe.daum.net/choyom.com

**주일에 배안내**  
주일오전 11시 30분  
주일오후 2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8시 30분  
금요예배 오후 8시 30분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망교회**

담임 서동기 목사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467번지 현대아이파크 A상가 2층 H.P 010-3342-7302

**주일에 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담임 강대일 목사 (한동보수 총회장)

서울시 중랑구 상봉 1동 40-5 ☎(02)433-0291(교)

**주일에 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천복복지교회**

담임 임상덕 목사

대구시 북구 동변동 U선수촌 213-703호 ☎(053)741-7732, 070-4220-7735

**주일에 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대한예수교 장로회 **풍성한교회**

담임 서재식 목사

경기도 시흥시 뱀장터로4, 3층(신천동) H.P 010-5660-8575

**주일에 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다니엘 교회**

담임 고정규 목사

경기도 시흥시 검바위1로 52-1 ☎(031)312-2613

**주일에 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담임 장승현 목사

충남 당진시 송악읍 봉학로 62-5(봉교리 55-6) ☎(041)356-0644

**주일에 배안내**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 오후 2:00  
삼일예배 오후 7:30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하는교회**

담임 마순덕 목사

전남 무안군 일로읍 무전길 24 ☎(061) 281-1671 010-4630-0091

**주일에 배안내**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01: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매주 금 오후 03:00, 08:00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사랑교회**

담임 장한국 목사 (전리동교회)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로10, 701호(배운동) 홈페이지 http://jicn.kr ☎031)424-7621, H.P 010-4436-7060

**주일에 배안내**  
주일대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7시30  
새벽예배 새벽 5시  
금요철야예배 밤 9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서하나님의교회**

담임 이정민 목사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주일에 배안내**  
주일 예배 오전 11:00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오후 8:00  
금요 기도회 오후 9:00  
2시 기도회(매일(월~토)오후 2:00)







# 예장진리총회 106회기 장한국 목사 총회장 연임

## 회계와 부회계만 자리바꿈, 총무 임원 그대로 유임



▲ 제106회기 신임원 단체사진

총회장  
장한국 목사

를 드린 후 임원선거에 들어가 총회장 장한국 목사를 연임하고, 회계와 부회계만 자리바꿈이 있었으며, 그 외 임원들은 연임됐다.

### ▲ 인도 : 서기 박민규 목사

서기 박민규 목사의 인도로 개회예배에서 회의록서기 김진환 목사가 기도드렸으며, 서기 박민규 목사가 성경 살전 5:16~18절을 봉독한 후 총회장 장한국 목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정 총무의 광고를 끝으로 총회장 장한국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 ▲ 말씀선포 : 총회장 장한국 목사

장 총회장은 살전 5:16~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

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세가지로 보았을 때 1. 항상 기뻐하고, 2.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3.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다.

이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지게 하는 것은 단 6:10절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 말씀을 보면 ‘이제 다니엘이 그 문서가 서명된 것을 알았을 때 그의 집으로 가서 그의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 두고,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으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라.’는 말씀이다.

이 말씀의 내용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발각되면 사자 굴에 던져넣겠다는 왕의 칙령을 받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심령이 너무나 기뻐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했다.

감사란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온다고 했다. 역지로 나오는 감사보다는, 기쁨으로 나오는 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감사했는가? 다니엘이 사자 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했다는 말씀이다. 다니엘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왕의 칙령으로 사자 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았던 다니엘은 이 일은 하나님께

라는 것을 정확히 깨달았다는 것이다. 이를 정확히 깨달았기에 기쁨이 솟아나는 것이며, 그래서 감사를 드렸다. 이는 다니엘의 신앙관이며 그 신앙관이 이원론적인 신앙관이다.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갖게 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이다.

성경 상에 용사가 많이 나오는데 기드온부터 읽다, 삼손 등 세 용사가 구약에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이들이 다 이원론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큰 용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칭함을 받았다. 다니엘도 같은 것이다. 오늘 우리도 이들과 같이 이원론적인 신앙관을 가진 믿음의 큰 용사가 되어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했다.

두 번째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다. 이것은 앞으로 순교할 날이 반드시 있음을 받아놓고 있는 자들이다. 순교할 그 날이 있기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보통 사역이라면 진짜 큰 사역이 앞으로 있는데 이 큰 사역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순교를 할 자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있게 하였고, 순교를 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했다.

세 번째로 총회장 장한국 목사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끝으로 전하고

인사했다.

2부 성찬식에 이어 3부 회무처리는 의장 장한국 목사의 사회로 김은임 목사(감사교회), 부회계 김정미 목사(새예루살렘교회), 회의록서기 유순옥 목사(조예교정선교회 대표), 회계 김은임 목사(감사교회), 부회계 김정미 목사(새예루살렘교회), 한편 언론방송신문(지저스타임즈 신문과 CJTN TV방송) 대표 정기남 목사는 진리총회 장한국 총회장과 대한노회 모든 목사들, 또한 주사랑교회와 성도여러분의 끊임없는 기도와 방송선교에 후원을 아끼지 아니하셨기에 언론사가 오늘까지 큰 힘이 되어주셨다고 말하고 머리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사

했다. 장 총회장은 지저스타임즈 신문방송 명예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매년 문서선교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또한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이하-한기보) 주관 요한복음 필사에서 진리총회 대한노회 수상자는 최우수상 김진환 목사, 우수상 장한국 목사(총회장), 대한노회 주사랑교회 사정아 집사, 새예루살렘교회 박수완 성도 등이다. 이번 요한복음 필사에서 진리총회가 종합 수상을 차지했다.

## 대한노회 노회장에 장한국 목사 연임



것이라고 했다.

노회장 장한국 목사의 설교는 지저스타임즈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설교 내용은 여기서 생략!(<http://jtntv.kr>) CJTN TV를 통해서 시청할 수 있다.

이날 2부는 성찬식을 갖고 집례에 정요한 목사, 분잔 분병위원은 김진환 목사, 이미정 목사가 맡았으며 집례자의 축도로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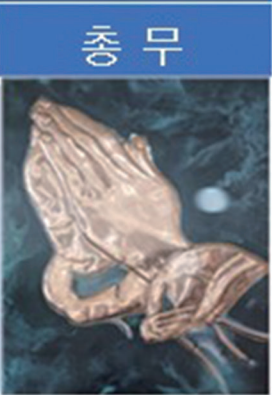
3부 회무처리에는 의장 장한국 목사의 사회로 유순옥 목사가 기도했다. 이어 서기 박민규 목사의 회원점명과 장한국 회장의 개회선언으로 회무처리에 들어가 전회의록 낭독과 절차보고와 회순 채택 순으로 진행되었다. 의장 장한국 목사는 선거위원을 선정하고 5분간 정회를 선포했다. 선거위원 위원장은 대한노회 제27회기를 이끌어갈 임원을 발표했다.

이날 신임원은 노회장 장한국 목사(연임), 서기 박민규 목사(유임), 회계 김정미 목사(유임), 회의록서기 김은임 목사 등을 발표했다. 대한노회는 지난 해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27회기에도 노회장을 비롯해 임원 전원을 유임하게 했다. 이어 신안건 토의 등을 논의하고 차기 노회 장소는 2022년 4월 새예루살렘교회(전상열 목사)에서 갖는다며 자원했다. 이어 노회장의 폐회가 선언되었다.

4부 폐회 예배는 노회장 장한국 목사의 인도로 전상열 목사 기도하고, 장 노회장은 성경 막 10:28~30절을 주제로 말씀을 선포한 후 축도로 대한노회 제27회기 정기노회를 화기애애한 가운데 마쳤다.

# 축 대한예수교 장로회 진리총회 제106회 정기총회

## 주제 :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살전 5:16~18절)

| 총 회 장                                                                               | 서 기                                                                                 | 부서기                                                                                 | 회의록서기                                                                                | 부회의록서기                                                                                | 회 계                                                                                   | 부회계                                                                                   | 총 무                                                                                   |
|-------------------------------------------------------------------------------------|-------------------------------------------------------------------------------------|-------------------------------------------------------------------------------------|--------------------------------------------------------------------------------------|---------------------------------------------------------------------------------------|---------------------------------------------------------------------------------------|---------------------------------------------------------------------------------------|---------------------------------------------------------------------------------------|
|  |  |  |  |  |  |  |  |
| 장한국 목사<br>주사랑교회                                                                     | 박민규 목사<br>천성교회                                                                      | 전상열 목사<br>새예루살렘교회                                                                   | 김진환 목사<br>주사랑교회                                                                      | 유순옥 목사<br>조예교정선교회                                                                     | 김은임 목사<br>감사교회                                                                        | 김정미 목사<br>새예루살렘교회                                                                     | 정요한 목사<br>꿈과사랑교회                                                                      |

성총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대한노회원 일동)  
지저스타임즈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 및 직원일동

진리총회 :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 10, 7층 대림프라자 고호5 Tel 031-424-7612  
총회장 : 장한국 목사 H.P 010-4436-7060, 서기 : 박민규 목사 010-9621-9627



#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

## 인천지역 시민공청회 개최



▲ 1.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 인천지역 시민공청회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 인천지역 시민공청회가 28일 오전 7시30분 인천기독교교회관 7층 회합실에서 열렸다.

인천기독교총연합회, 인천성서화운동본부, 인천기독교총연합장로회가 공동주최한 이날 시민 공청회는 최조길 회장(한국선교100주년기념탑 보전선교회)의 사회로 김성호 이사장님(사)한민족사랑네트워크)의 기도, 김기덕 목사(인기총 총회장)와 문세득 장로(인장총 총회장)의 인사말에 전용태 장로(인천지침 검사장, 세계성서화운동본부 대표회장)가 격려사를 전했다.

지난 2007년부터 동성애 동성혼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에 앞장서온 전용태 장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뿌리가 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차별금지사유에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 하는 ‘성적지향’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는 교회들이 시민들에게 문제점을 알려야 한다.”며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법안의 문제점을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철영 목사(세계성서화운동

부 사무총장)가 공청회 취지를 설명했다. 김 목사는 “지난 9월 9일 전남지역 시민공청회를 시작으로 광역시도 단위로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한편 공동 입장문을 채택해 여야 정당 대표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 인천지역 시민공청회 김희재 의원 국회상황 소개

김희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랑의교회 장로)은 국의 상황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들 중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내용을 깊이 알지 못하고 법제정에 찬성하고 있다.”며 “심지어 신실한 크리스천 국회의원도 제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문제점을 다루는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저에게 찾아와서 우려를 하면서 자신은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법안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더니 이해를 하면서 좀 더 알아보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에게 이 법안의 내용을 충분히 알리는 일”이라며 “공청회를 통해 찬성과 반대만 표명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어 “금년 2월에 서울시장 재보선 안철수 후보와 금대섭 후보가 방송토론회에서 금 후보가 안 후보에게 ‘서울시장이 되면 광화문에서 쿼어축제가 열리면 참석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가 ‘차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하지만, 쿼어축제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권리도 존중받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답을 했다. 그런데 성소수자 혐오발언에 해당된다면서 성소수자 단체에서 지난 4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9월 1일 안철수 후보의 발언은 혐오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 사회 지도층이 그런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교육하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 관련 부정적 시각을 노출하게 되면 ‘혐오발언’이라며 성소수자들이 문제제기를 하면 사법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는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를 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방관으로 정하지 않았다. 법안 찬성의견은 민주당 전체 의견이 아니라 일부 세력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 민주당 의원들이 세 건을 대표발의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 문제점을 적극 알려야 한다. 끝까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3.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 인천지역 시민공청회 조영길 변호사 발제

조영길 변호사(전 서울중앙지법 판사,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와 성전환, 동성결혼을 성경적 양식

에 의해 반대 의견조차 못하게 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차별금지사유에 21가지가 있는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남자와 여자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 등 우리가 반대할 독소조항을 섞어놓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안의 내용 중 ‘괴롭힘’ 조항이 있는데, ‘부정관행’이라고 해서 부정하면 정신적 고통을 느낀다고 해서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한다는 성경적 진리를 양심과 가치관에 의해 말을 해야 하는데 ‘정신적 고통을 주지 말라’면서 ‘잔성만 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민주사회에서 찬반의 가치관을 자유롭게 이야기해야 하는데 반대를 못하게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헌법에 보장된 신앙과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박탈하는 동성애 독재법, 성전환 독재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변호사는 “이 괴롭힘을 금지시키면서 통화를 할 수 없다. 그러면 동성애와 성전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돌이키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막는 법이다. 또한 진리의 선포를 막는 법”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분열이 없이 하

나가 되어 이 법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부보 최은정 씨와 우남식 인하대 초빙교수님이 자유발언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을 경우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 의견을 밝혔다.

최 씨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성적자기결정권교육이라는 이유로 12가지의 피임법을 가르치고 있다.”며 “교육과 문화에서 이제는 동성애 코드를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우 교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가정의 티가 무너진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공동입장문을 채택하고 “인천의 3800개 교회 100만 성도들은 차별과 불평등을 반대한다.”면서도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오히려 국민 다수에 대한 역차별을 야기하고 불평등을 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거나 정죄하지 않으며, 동성애 성향으로 인해 내면적 고통을 겪는 이들을 위로한다.”며 “그러나 동성애를 법으로 옹호하

며, 나아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차별금지사유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성적지향을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와 함께 헌법 제36조1의 ‘혼인은 양성애 기초’하는 것을 위배하고 ‘남자와 여자 외에 구분하기 어려운 성’ 즉 제3의 성을 인정하려는 것을 반대하며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유현영 목사(공청회 준비위원장)의 광고에 이어 이진영 목사(전 교강협 이사장, 인천제2교회 담임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 4.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 인천지역 시민공청회 입장문 채택

광역시도별 시민 공청회를 기획한 김철영 목사는 “지난 9월 9일 전남지역 시민공청회에 이어 오늘은 인천지역 시민공청회를 열었고, 오는 10월 6일에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지역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며 “그리고 경기도와 충남 지역 등 광역시도별로 계속 진행할 것이며, 여야 정당 대표들에게 입장문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동대 VIC아카데미, 교회학교교육 설명회 개최



한동대학교(장순홍 총장)가 지난 7일 오후 2시30분 포항기쁨의교회 교육관 2층 강당에서 다음세대 회복을 위한 '교회 학교교육 설명회'를 갖고 VIC아카데미에 큰 교회는 물론 중소형 교회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VIC 조중등교육지원센터와 세계성서화운동본부 후원하고 VIC아카데미가 주최한 이날 설명회는 서병선 교수(한동대)의 사회로 세계성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의 기도로 시작했다.

김 목사는 “VIC아카데미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글로벌한 인재로 양성하게 하고, 키와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

랑을 받았던 예수님처럼 전인적 성장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라고 간구했다.

이어 장순홍 총장이 영상으로 인사말을 전했다. 장 총장은 “교회 내 주일학교가 급속히 쇠퇴하고 있다. 중고등학교 복음화율이 5퍼센트 이하라고 들었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보다 한국교회 큰 도전은 교회 내에서 다음세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반 초중고 공교육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매우 큰 염려가 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학교 교육에서 기독교에 대한 도전은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 총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기술로 인해 교육에는 큰 변화가 시작됐다. 저는 이런 변화가 한국교회에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한동대는 지난 2018년부터 다음세대 프로젝트교육을 위하여 VIC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올해 초에는 VIC조중등교육지원센터를 설립했다. VIC조중등교육지원센터에서는 4차산업혁명기

술을 이용하여 다음세대를 위해 교육교재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한다. 그리고 우수한 기독교사들을 양성하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양규 교수(VIC 조중등교육지원센터장)가 “왜 교회 학교교육인가”를 주제로 VIC 아카데미를 소개했다.

제 교수는 “VIC아카데미를 위해 8명의 교수와 학생 7명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으며, 학생 찬양단 한동빛밴드가 결성됐으며, 기도모임 등이 진행되고 있다.”며 준비과정을 소개하고 “VIC아카데미는 교회들이 시설과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방과후교회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의 교회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는 방과후학교를 먼저 시작하고, 내후년에는 고등학교 과정의 교회학교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방과후학교는 중소형교회들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방과후교실은 사설학원이나 학부모듈로 구성된 돌봄공동체로 운영하면 된다.”고 밝혔다.

### 나 자신과 가족과 교회를 지키는 방법

COVID-19 Ag Home Test  
코로나19 항원 자가 검사 키트 가이드



2키트  
소비자가격 17,600원  
교회특별가격 14,000원

(주)영광기업 1588-0691  
010-3651-8572  
1년365일 바로처리

### 전자동 손소독기

손소독과 체온측정을 한번에!

비접촉식 발열체크 및 손소독



248,000원 ▶ 148,000원에 드립니다

복사기 만대 이상 판매, 열화상 카메라도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열화상 카메라 구매가 부담되어 망설이셨던 교회에 기본 소독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비접촉식 온도계 + 자동손소독기 + 발열체크 + 충전기 + 소독액 5종류(전부 포함)를 택배비 경도만 받고 148,000원에 드립니다. 코로나19를 이기고 예매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소개 영상을 꼭 한번 봐주시고, 이웃 교회 방역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천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https://youtu.be/CbLx-7X0fG4>

(주)영광기업 1588-0691  
010-5779-0691

### 열감지기 + 전자동 손소독기

손소독과 체온측정을 한번에!

비접촉식 발열체크 및 손소독



398,000원

▶ 298,000원

(주)영광기업 1588-0691  
010-5779-0691  
1년365일 바로처리

장로회총회, 감리회본부, 침례교본부, 성결교총회 외 10,000여 교회에서 절찬리 사용중입니다!

칼라 복사기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A3 세계최강 세계최초 유성(안료)잉크

(2019년 기독교 관련 신문에 실린 광고입니다.)

컬러주보복사기 출시

(복사, 프린트, 스캔, 팩스, WiFi, 양면 기본)

- 3단 6면주보 출력 가능
- 주보 양면 연속 가능 (7렛트에서 주보가능)
- 4단 8면 주보 출력 가능
- 현금봉투, 소봉투, 대봉투 출력가능
- 1m 20cm 빠른 출력 가능
- 후면 급지대 (80매 적재가능)

※컬러를 물 쓰듯 쓴다 소모품 비용 획기적 절감  
이젠 비용 걱정 없이 컬러 인쇄를 마음대로~

- 자동 양면 인쇄 및 양면 스캔 지원
- 중요한 문서는 비밀번호 설정으로 보호
- 128cm 대형 컬러 터치 패널
- 경제적인 슈퍼 대용량 잉크 카트리지를 채택으로 유지비용 절감
- 대용량 용지 급지함 지원
- 동급 최강의 빠른 출력속도(24~34매)
- PC 없이 스캔 파일을 자유롭게 전송

테이블(15만원) 옵션  
이번에 주문하시는 분에 한하여 잉크 한 세트(B/K/C,M,Y 4개)를 드립니다.

주식회사 영광기업  
TEL. 1588-0691

서울시 종로구 효제동 51-3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앞)  
대표이사: 정학영 대표 010-3651-8572, 010-5779-0691 인천공장: (계양구청 앞) 032-551-4114



#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대신교단 설립 60주년 기념대회/ 미주대한신학대학교 학위수여식/ 류당열 목사 자서전 출판 기념회/



▲학위수여식을 마친 후 졸업생들과 학교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크리스천비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대신) 남가주노회, 미주대한신학대학 공동 주관으로 지난 11일(주일) 오후 4시 중앙루터교회(담임 홍영환 목사)에서 대신교단 설립 60주년 기념대회, 미주대한신학대학교 학위수여식, 미주대한신학대학교 총장

취임식, 류당열 목사 자서전 출판 기념회 및 경축음악회가 열렸다.

김영배 목사(남가주노회증경노회장)가 인도한 1부 예배에서 엘림교회 찬양팀의 경배와 찬양을, 이강필 목사(텍사스 분교 부총장)가 대표 기도를, 박웅기 목사(미주노

회 증경노회장)가 성경봉독(예레미야 29:12-13)을 한 후 4대 총장 박효우 목사(풍성한교회 담임)가 '대신 60년 역사'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박 목사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민족복음화를 외

친 (고) 김치선 박사처럼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길 바란다. 영성과 지성과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고) 김치선 박사의 고귀한 뜻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자”고 말했다.

최아람 목사(남가주노회 증경노회장)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고, 2부 졸업 및 학위 수여식이 거행됐다. 김숙영 교수(미주대한신학대학교 음대 학장)가 미주대한신학대학교 교가를 선창한 후 총장 류당열 박사가 2021 학위를 수여했다.

이어 제3부 총장 취임사에서 이은규 박사(전 안양대학교 총장)가 미주대한신학대학교 제7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이 박사는 코로나 19로 직접 미국에 올 수 없어 영상으로 취임 인사를 대신하게 됐으며 양해를 구한 뒤 “그동안 6대에 이르기까지 전임 총장님들의 헌신과 노고로 미주대한신학대학교를 훌륭한 신학교로 성장시켜왔음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학교 발전을 위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 줄 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미주대한신학대학교를 명실상부한 사학의 명문으로 성장시키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고 말했다.

제4부 류당열 목사 자서전 출판

기념회에서는 석정희 시인이 '초원의 거목'이라는 축사를 직접 낭송한 후 대신 교단 60주년 기념 홍보 동영상도 시청했다. 이상재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대신교단 총회장)가 축사를 했다.

존 리 박사(미주대한신학대학와싱턴 분교 부총장)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차종환 박사(전 평동회장)가 박경재 LA총영사 축사를 대독, 최석호 주 하원 의원(캘리포니아 68 지구), 랄프 안 박사(도산 안창호 선생 3남), 이의완 박사(증경총회장), 김인수 박사(전 미주장신대 총장), 오바울 목사(미주노회장), 토니 데이비스 박사(통역: 폴리 목사) 등이 축사를 한 후 김숙영 교수의 사회로 경축음악회가 열렸다.

이번 음악회에 참가한 팀은 △박 피스 목사 외 9명(지휘 박 줄리, 피아노 조숙자) △월드타운찬양팀(메리 리 선교사, 그레이스 나) △클라리넷 연주(윤상혁 장로 △찬양동(김소연 목사, 이현주, 김부전, 박현주, 김은선) △독창(오위영 목사) △4 중창(최경섭 목사, 주요섭, 데이빗 방 선교사, 신조셉 집사) △오위영 테너, 김숙영 소프라노가 2중창으로 'The Prayer'를 부른 뒤 모든 출연진들과 회중이 함께 '여기에 모인 우리'곡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 김회장 목사(한국예비역군인회 남가주 지회 회장)의 축도로 행사를 은혜가운데 마쳤다.

## 진용식 목사, 신흥 이단 '동방번개' 각별한 주의 촉구



▲왼쪽부터 종신대학교 심창섭 명예교수,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 협회 회장 진용식 목사. © 크리스천비전

예장합동 총회 이단(사이비) 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위원장 배만석 목사, 이하 이대위)는 최근 대전광역시 인터시티 호텔에서 자체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이대위원들과 배광식 부총회장, 고영기 총회 총무가 참석했다. 감사로는 심창섭 전 종신대 신대원장 및 부총장과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 협회 회장 진용식 목사가 초청됐다.

‘칼빈의 이단 배척’을 주제로 강연한 심창섭 명예교수는 “현재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이단과 종교개혁자 칼빈이 경험한 이단 사이에 유사한 점이 많다. 칼빈 시대에 영적 자유파들의 결정론적 범신 사상은 오늘날 이단들의 영적 세계에 대한 오류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며 “교주의 신격화, 성경과 다른 기준의 우주관과 역사관, 성령 세례 주장 및 거짓 확신을 통해 환상을 체험하는 영과 형태, 반인륜적 반윤리적 행위, 완전주의 추구, 재산 공유제 주장을 과거와 현재 이단의 유사점”으로 언급했다.

심 교수는 “칼빈이 이단으로 지적한 영적 자유파와 같이 오늘날 이단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말씀 중심의 인격적인 신앙을 강조하기보다는 기준이 없는 주관적인 성령체험을 강조한다”며 “목회자들이 말씀과 성령을 분리시키지 않는 칼빈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방번개(전능신교)’를 주제로 강연한 진용식 목사는 “신흥 이단 동방번개가 국내에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며 “한국교회가 동방번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신천지 이상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진 목사는 “동방번개는 1989년 중국에서 시작된 가운데 현재 200만 명이 넘는 신도가 소속돼 있다. 중국 당국의 포고 금지 및 교주 조유산 양향빈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지자, 포고 거점을 해외로 옮기고 있다”고 밝혔다.

진 목사는 또 “동방번개 신도들이 난민신청을 통해 세계 각국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한국에 동방번개 신도들이 많이 들어왔다. 동방번개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건물을 지어 포교를 하고 있다. 포교방법으로는 포교를 하면 돈을 주는 다단계 수법을 동원하고, 신천지의 추수꾼 전략과 유사하게 교회 내부에 침입하여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후 포교하는 내부 정탐 및 사전 공작도 주요 포교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동방번개의 포고 금지 대상은 불신자, 타 이단 신도, 빈곤자, 노약자, 지체 장애인인 반면, 주요 포고대상은 기독교인이다. 기독교인이 동방번개의 주요 포고대상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특별히 경계를 늦추서는 안 된다. 현재 이단 상담소에 동방번개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는 가운데 있지만 한국교회는 동방번개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진용식 목사는 동방번개 대처법으로 ▲구원의 확신에 대한 강력한 믿음 제시 ▲이단 경계 강화 ▲교회 밖 성경공부 금지 ▲동방번개의 인터넷 동영상 설교 주의 ▲교회에 침투하는 내부 정탐인 주의 등을 꼽았다.

## 조예교정선교회 청송교도소 1소 방문

과배기 3,000개, 성경 100권, 필사노트 200권 전달



유순옥 대표

조예교정선교회 대표 유순옥 목사와 임직원 일동은 1990년대 맞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송교도소 1소를 방문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치고 힘든 수용자들을 위로하고 준비해간 과배기 3,000개와 성경 100권 필사노트 200권을 전달했다.

유순옥 대표는 수용자들을 위로

하면서 힘을 내라며 여러분의 앞길은 얼마든지 열려있다면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러면서 대표 유순옥 목사는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로 누구나 아픔과 고난을 겪을 때가 있다고 말하면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삶에 위안길에는 누구나 일목진 일들은 있었다고 했다. 후회해도 결국 시간이 말해 주듯이 세월이 가면 상처가 아물 듯이 좋은 결과는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질 때 이루어진다고 했다.

작은 돌 한 조각이 조개 살 속에

들어가면 조개는 그 돌로 인하여 쓰라린 고통을 겪지만 세월이 말해 주듯 값진 진주를 만들어 낸다고 말하고 지금은 담장 안에서 아픔도 있지만 아픈 것 만큼 좋은 성과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디 다시 돌아갈 현실을 꿈꾸며 언제 일지 모를 그날을 기약할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을 가지라고 말했다.

끝으로 조예교정선교회 대표회장 유순옥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에게 조금씩 나타내어지고 위로

받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송 교도소 1소를 방문한 조예교정선교회 유순옥 대표회장, 청송교도소 소장, 과장 계장 사회복귀과 직원과 최화순 목사 백은

성 목사 모은희 전도사 등 뜻을 함께한 성도들이 자리를 함께 했으며 감사를 전했다.

한국의전협동조합(대표 류재현 장로)



**에배시간 안 내**

| 내 용         | 시 간        | 장 소     |
|-------------|------------|---------|
| 주일오전예배[1부]  | 오전 9:30    | 대 예 배 실 |
| 주일오전예배[2]   | 오전 11:30   | 대 예 배 실 |
| 주 일 밤 예 배   | 오후 8:00    | 대 예 배 실 |
| 수 요 일 밤 예 배 | 오후 8:00    | 대 예 배 실 |
| 금요일야기도회     | 오후 9:00    | 대 예 배 실 |
| 새 벽 기 도 회   | 새벽 5:40    | 대 예 배 실 |
| 유치부 주일예배    | 오전 11:30   | 유 치 부 실 |
| 어린이 교회학교    | 주일오전 11:30 | 어린이예배실  |
| 중고등부 학생회    | 주일오후 200   | 어린이예배실  |
| 청 년 대 학 부   | 주일오후 200   | 어린이예배실  |

**홍성제임장로교회 내포제2성전**

**대한기독교장로회**  
**평안하고 든든한교회**  
A Peaceful and Reassuring CHURCH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요 4:24]

충남 홍성군 홍북읍 자경리 51 (041) 631-9145

**담임 오종설 목사**  
(지저스타임즈 CJTN TV 이사장)

평안하고 든든한교회







## 인천영광교회 조강수 목사

# 매주 금요일 전국목회자 초청, 큰 변화의 바람!

## 불 같고 방망이 같은 메시지에 큰 변화 일어



조강수 목사

록 적은 쌀 4kg을 기부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계획은 쌀 8kg 자리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어려운 교회의 목회자와 그의 가족들을 돌보는 의미에서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기부할 것이라고 한다. 이를 위하여 매일 밤 성도들과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 기자가 바라본 영광교회 장로,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평신도에게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얼굴에서 빛이 난다. 웃음을 잃지

배정희 목사, 사무총장 이선한 목사를 비롯 회원목회자들이 뜻을 모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를 방문, 또는 초청을 받아 집회를 열고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고 있다.

조강수 목사는 코로나19로 어렵지만 인내하되 이제는 교회들이 문 닫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교회들이 문을 닫았을까 하고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며 강단에 올라가 기도하는 일 외에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강수 목사는 우리가 모이는 것은 목회자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세미나를 더 갖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40여년의 목회 경험담을 교재로 도움을 드리는 데 있다며 전국 목회자를 초청하고 후원예배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이를 시작

위한 기도회가 절실하다면서 본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우사랑 목사(지저스타임즈 기자 및 이사)는 영광교회에 와서 많은 것을 깨달았고 조강수 목사의 은혜가 넘치는 설교, 불같이 쏘아지는 능력의 메시지를 통해 첫사랑을 회복했다. 기쁨을 참지 못했다. 이곳에 오길 참 잘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다 신앙을 고백했다. 또한 영광교회를 섬기고 있는 여선교 회장 최창옥 권사는 당회장 조강수 목사의 뜻에 따라 전 성도들이 힘을 모았다면서 전국에 어려운 개척교회를 도울 수 있게 되었고,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많은 목회자를 초청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오시길 기도한다고 했다.

## 『광야 40년은 훈련장』

광야 40년을 생각해 보세요, 광야 40년 생활은 교회 생활을 의미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가, 신명기를 보면 홍해바다, 반석,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등이 등장합니다. 그것들의 공통점은 인간의 힘으로 조절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홍해바다를 사람이 못 가집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날 수 없습니다. 구름기둥? 꿈도 못 꾸요. 불기둥?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만나 떨어진다 것은 절대로 실현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만 된다고 한다면 복 못 받을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

는데 꼬치꼬치 조건을 따진다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가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반석에서 샘물 나오게 하는 것은 물론 구름기둥, 불기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장 만사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찌처럼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어? 무슨 말씀이세요?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었는데요? 맞아요. 그러나 인구는 늘어났지만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들은 없다는 말입니다.

광야 40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면 성령의 도구로 만들기 위한 훈련장이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구석구석마다 준미의 흔적이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인생을 40년 이상 살아오신 분들 한 번 지난 시절을 돌이켜보세요, 매일은 못 느껴도 지난 잊로는 다 주님의 보살핌이 있었습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해 주셨고, '이젠 할 수 없구나!' 하고 포기할 때 그 일을 성취하게 해주셨고, 목마르다 싶을 때 주님이 물을 주셨습니다. 돈 떨어져서 곤란을 겪을 때 하나님은 물질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으로 인한 갈등 때문에 괴로워할 때도 하나님은 찾아와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멘.

조강수 목사 설교집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편- 중에서

렘 23:29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나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코로나19로 움츠러들었던 목회자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은 어디로 갔는가? 방전되어버린 건전지 신세, 능력 없는 목회자로 반신반의한 가운데 참석했다가 조강수 목사의 불 같은 메시지, 방망이 같은 메시지에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데... 조강수 목사의 불 같고 반석을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와 같은 메시지에 많은 목회자들이 생각이 바뀌면서 이제야 눈을 뜨게 됐다고 고백하는 등 큰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인천영광교회 조강수 목사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4시까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전국목회자 초청 후원예배 및 세미나를 개최한 지 벌써 26회째를 맞이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손소독과 거리 두기 등 예방 행동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식사 대신 참석한 목회자들에게 쌀 4kg 1포씩 때로는 라면 등을 기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많은 목회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

서 조강수 목사 자신도 어렵지만, 이분들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일을 결심한 가운데 2021년 4월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2시~4시까지 전국 목회자 초청 후원예배와 세미나를 강행하고 있다. 26회째 이 사역에 매진하고 있으며 각 지역에서 매주 금요일 약 50~70여 명이 참석하고 있다.

또한 조 목사와 성도들은 영광교회에서 준비한 쌀 나눔 행사에 헌신 봉사하고 있다.

조 목사와 교회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적은 것이지만 예배 및 세미나를 열고 서로가 아픈 마음을 털어놓고 함께 기도하면 해결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주시길 것을 확신한다고 이 일을 위해 전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지만 성도들은 이 기부문화에 통해 나눔의 행사를 갖는 것이 너무도 기쁜 일이라고 했다.

이날 조강수 담임목사는 기도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전국에 많은 개척교회가 문을 닫아야 하고 급기야 2300개가 넘는 교회가 없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매일 같이 밤을 새우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눈시울을 적시며 인터뷰에 말을 잊지 못했다.

이 시대에 이렇게 후덕한 목회자가 있다는 것을 볼 때 기자(지저스타임즈 CJT TV)도 이 일에 동참할 것을 약속하고 영상을 녹화해서 조강수 목사의 불같은 메시지를 편집 방송하고 있다.

## - 불 같고 방망이 같은 메시지에 큰 변화 일어 -

### 자가용을 굴리는 것보다 그 비용으로 어려운 목회자를 돕겠다

조강수 목사는 자가용은 없고 대중교통이 자가용이다.

그래서 조 목사는 기도해 오던 중 결심하고 이 일을 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큰 교회는 아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교인들이 많이 감소되어 있고, 재정적인 타격도 있지만, 이웃 교회들과 개척교회들을 바라볼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자들을 생각할 때 자가용 타는 것을 포기하고 마을버스 또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하나님이 주신 자가용이라고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조 목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다. 자가용에 들어가는 비용이면 개척교회를 더 많이 도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비

않고 항상 스마일이다.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냐고 물으면 한결 같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말한다.

기자의 한 사람으로 참으로 감동적이다. 전 교인들이 합심하여 목회자 조강수 목사를 보좌하며 일치단결한 성도들과 조강수 목사는 이제는 전국에서 찾아온 목회자들이 한 가족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한 결과 서로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친한 형제자매 사이처럼 큰 기쁨을 나누게 되었고, 서로를 위로하며 덕담으로 큰 힘을 얻고 새로운 희망과 꿈을 안고 목회 현장에서 목회에 큰 힘을 얻고 있다고 말한다. 그런 가운데 조강수 목사와 교회 멤버 찬양단과 회원단체장인

으로 영광교회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며 적지만 조그마한 4kg 자리 쌀 한 봉지를 기부한다고 했다.

한편 전국 목회자 후원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지저스타임즈 수석 상임이사 배정희 목사(믿음교회 담임)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픔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해결방법을 놓고 기도하자고 했다. 또한 사무총장 이선한 목사(지저스타임즈 상임이사 및 기자)는 이곳에 동참해서 영육 간의 중전을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4시까지 [쌀과 라면 나눔]

# 전국목회자 초청 후원 예배 및 세미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이 아니하나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렘 23:29절)

인천영광교회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 366(구.가좌동) 전화 : 032-577-1225

강사 : 조강수 목사  
(언론부흥사협의회 증경회장)

<찾아 오는 길 교통편>

28번 버스 한신희아파트 정류장 하차

28-1 버스 한신희아파트 정류장 하차

3-2 버스 범양아파트 정류장 하차

24-1 버스 코스모스 아파트 하차

<지하 철 이용>

동암역에서 - 593 마을버스 승차 - 범양아파트 하차(중점)

백운역에서 - 566 마을버스 승차 - 범양상가 정류장 하차(중점)